

특집

新經濟 5 個年計劃 ('93~'97)

— 參與와 創意로 새로운 跳躍을 —

본 資料는 金泳三 大統領의 「新경제」構想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經濟改革과 經濟運營에 관한 靑寫眞을 담은 「新경제 5個年計劃」의 綜合보고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計劃樹立經過〉

- 「新경제 計劃委員會」 구성(93. 4. 14)
學界, 言論界 및 經濟界(노동계 포함)人士(15명)와 經濟部處借款 등으로 「新경제 計劃委員會」 구성
- 作業推進機構 構成(93. 4. 21)
 - 26개 課題別로 관련부처 公務員, 研究機關, 大學教授, 民間團體 등이 參與하는 實務作業班 구성(572명 參與)
 - 作業班別로 部門計劃 試案 작성
- 「新경제 5個年計劃」本計劃(案) 확정·발표
 - 「新경제 計劃위원회」(6. 24), 「經濟長官會議」(6. 25)에서 심의
 - 「經濟社會發展計劃審議會」(위원장: 국무총리) 개최(6. 30)
 - 大統領 主宰 報告大會 개최(7. 2)

■ 「新經濟」의 基本構想

I 經濟發展의 새로운 原動力

과거 우리 경제의 發展原動力이었던 政府의 指示와 統制는 우리경제의 規模 擴大와 構造 多樣化에 따라 그 效能이 점점 떨어져 왔으며, 특히 政治的 民主化에 따라 더 이상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民主화된 사회에서 가장 效率的인 經濟發展의 原動力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일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經濟活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각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능동적인 創意力을 발휘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능동적으로 創意力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경제의 生産性이 크게 상승하여 강하고 튼튼한 經濟가 실현될 것이고 모든 국민의 參與와 創意는 우리 경제가 발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成長源泉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參與와 創意”를 經

濟發展의 새로운 原動力으로 하는 「新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新경제」란 “모든 國民이 함께 하는 經濟”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國民은 政府와 民間이 함께 포함된다.

즉 「新경제」란 “政府와 民間이 함께 만들어 가는 經濟”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新경제」는 民間主導 經濟運營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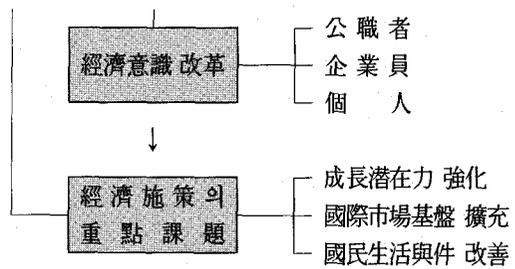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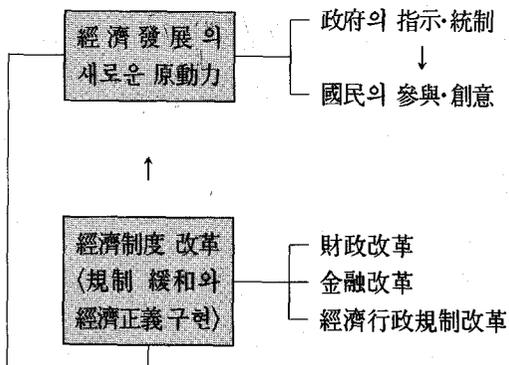
우리는 향후 2~3년내에 「新경제」建設을 통해 經濟發展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先進經濟權 진입을 향한 지속적인 經濟發展의 軌道에 진입하여야 한다.

II 「新경제 5個年計劃」의 目標

“모든 國民의 參與와 創意”를 發展의 原動力으로 하는 「新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계획기간중 先進經濟 圈에 진입하는 것과 아울러 머지않은 將來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統一에 대비하여 그 經濟的 費用을 감내하기 위한 經濟的 基盤을 마련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결국 先進經濟圈에 진입하고 統一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經濟」를 건설하는 것이 計劃의 目標이다.

「新경제」構想의 體系



II. 「新경제 5個年計劃」의 推進戰略

1. 基本戰略

「新경제 5個年計劃」의 첫걸음으로 「新경제 100日計劃」을 수립·추진하였다.

「新경제 100日計劃」은 「新경제」建設의 成敗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아래 政府의 經濟運營 能力에 대한 信賴를 구축하고 모든 國民이 마음을 모아 함께 펼 수 있는 靄圍氣를 조성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新경제」의 發展 原動力이 되는 “모든 國民의 參與와 創意”를 유발하기 위하여는, 國民의 生活와 企業의 活動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고 (“작은 政府”), 生産에 대한 국민 각자의 寄與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保障하는 經濟正義가 확립되어야 한다.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따게 함”)

規制緩和와 經濟正義 具現을 위해 財政(租稅 포함), 金融, 經濟行政規制 등 經濟制度 全般을 획기적으로 改革하여 制度改革의 效果를 강화하고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經濟主體에 대한 意識改革을 制度改革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2. 經濟改革의 推進

經濟制度改革은 國民의 參與와 創意가 유발될 수 있도록 對內外 規制의 緩和와 正當한 補償의

보장을 뒷받침하는 制度的 裝置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經濟制度를 財政制度(조세제도, 세출구조 및 예산제도), 金融制度 및 經濟行政規制制度로 나누어 추진하여 制度改革은 부분적 개혁보다 根本的 改編을 추구하되 施行錯誤가 없도록 노력한다.

經濟意識改革은 각 경제주체가 個人的 欲求 噴出과 集團利己主義 發露를 억제하고 經濟活動에 대해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능동적으로 創意力을 발휘하도록 教育和 運動을 전개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經濟意識改革은 경제행정을 담당하는 公職者, 생산을 담당하는 企業員(기업주 및 근로자, 농어민 및 자영업자), 소비생활의 주체인 個人(가계) 등 모든 經濟主體內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公職者의 意識改革은 政府의 自體教育에 주로 의존하고 企業員과 個人的 意識改革은 民間主導의 市民運動을 통하여 추진한다.

3. 經濟施策의 推進

改革의 추진과 더불어 成長潛在力의 強化, 國際市場基盤의 擴充 및 國民生活與件의 改善을 經濟施策의 重點課題로 추진하고 成長과 安定의 調和를 도모하기 위하여 「成長潛在力의 強化」를 經濟施策의 最優先 課題로 삼아 높은 潛在成長率을 유지하면서 實際經濟成長率은 潛在成長率 범위내에서 유지한다.

産業構造調整의 촉진, 技術開發의 촉진,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에너지 및 資源의 效率的 利用, 經濟社會의 情報化 촉진, 國土의 效率的 利用, 人力開發의 강화, 勞使關係의 안정, 物流組織의 效率的 發展, 公正去來秩序의 정착, 中小企業의 競爭力 강화, 農漁村 社會의 개발, 地域均衡發展의 촉진

등을 細部課題로 선정한다.

우리경제의 國際的 位相을 提高하기 위하여 「國際市場基盤의 擴充」을 經濟施策의 主要課題로 삼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開放·國際化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國際化의 확대·심화, 世界經濟秩序에의 參與 확대, 自主的 輸出體制의 확립, 資本協力の 강화, 開途國 經濟協力の 확대, 南北 經濟協力の 강화 등을 細部課題로 선정한다.

그리고 國民經濟의 衡平提高를 도모하기 위하여 「國民生活與件의 改善」을 經濟施策의 主要施策의 主要課題로 삼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國民生活의 質과 與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住宅難 완화, 大都市 交通難 완화, 環境改善, 社會福祉 증진, 消費者保護 강화 등을 細部課題로 선정한다.

4. 年次別 計劃의 重點

처음 100日

- 景氣活性化에 주력
- 行政制度緩和 중심의 制度改善
- 公職者 意識改革 착수

93年 下半期

- 國內部門 制度改革의 착수
- 對外部門 制度改革 기반 조성
- 公職者 意識改革 본격화
- 市民意識改革 착수

94 年

- 國內部門 制度改革 마무리
- 對外部門 制度改革의 착수

- 公職者 意識改革의 마무리
- 市民意識改革 본격화

95 年

- 對外部門 制度改革 본격화
- 意識改革의 成熟段階

96 年

- 生活經濟 문제해결 노력 본격화
- 對外部門 制度改革 마무리
- 制度改革의 미비점 보완

97 年

- 「新경제」의 目標 達成

■ 「新經濟 100日計劃」의 重點 課題

I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景氣活性化의 효과가 中小企業 部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中小企業의 構造改善을 추진하고 아울러 中小企業이 支援體制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中小企業 支援制度를 再整備한다.

1. 中小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政府財政의 節減分을 포함하여 약 1兆 4千億원에 상당하는 公共財源을 조성하여 中小企業 관련 製品購買와 自動化·合理化·技術開發 등 構造調整 事業에 투입한다.

특히, 中小企業의 構造調整事業을 大企業과 共同으로 추진하거나 中小企業이 大企業과 튼튼한 系列·協力關係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중점 支援한다.

2. 金融規制 改善을 통한 資金難 緩和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與信禁止業種의 不動產을 제외한 모든 不動產에 대해 擔保取得을 허용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의 商業어음 割引限定制를 폐지한다.

그리고 향후 6개월간 中小製造業體가 할인 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再割引 期間(大企業 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日에서 120日까지 연장하며 中小企業의 會社債 發行은 支給保證을 받은 경우 評點에 관계없이 전액 許容하고 證券會社의 中小企業 會社債 支給保證 규모를 확대한다.

현행 有望中小企業 設備資金(2,5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므로 2,500億원을 추가지원하고 상반기중 10億弗 규모의 外貨貸出 資금이 中小企業體에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도록 各 銀行에 特別窓口를 개설 운용한다.

3. 中小企業의 販路支援

23개 政府投資機關의 '93년 中小企業 物資購買 豫算의 65%(1兆원 규모)를 上半期中 早期 執行하고 貿易振興公社에 中小企業 自己商標 輸出支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의 지원 아래 國內 및 주요 海外市場에 中小企業製品 常設展示場을 설치한다.

4. 中小企業 支援體制 整備

복잡다기한 현행 中小企業 資金支援 制度를 통합하며 특히 政府의 構造調整基金도 현재 업종별, 지역별, 사업별로 分散 사용되고 있는 것을 構造調整 효과가 큰 分野에 集中 사용하는 방식

으로 개편한다.

稅制支援制度도 알기 쉽게 개선하고 7개 地方國稅廳에 서류작성 등을 代行해 주는 「租稅相談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出捐研究所가 개발한 技術을 中小企業에 無償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中小企業振興公園內에 中小企業의 事務自動化와 生産자동화를 지원하는 「情報化 事業團」을 설치한다.

또한 政府購買制度를 개선하여 中小企業의 新技術 開發製品를 안정적으로 사 줄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뒷받침 한다.

5. 地方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情報 提供體制 마련

信用保證機關의 각 地方점포에서는 그 지역의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調査 資料를 보유·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中小企業이 去來希望 企業에 대한 情報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6. 「中小企業 隘路打開委員會」設置

副總理 또는 商工部長官 主宰로 관계부처 장관, 금융기관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여하여 月 1회 定例의으로 개최하고 以上の 모든 育成施策과 制度改善 事項이 실제로 現場에 침투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II. 技術開發의 促進

政府의 技術開發 投資가 産業現場의 生産技術 向上으로 연결되도록 종래의 技術開發 體系를 과감히 改編하고 先進技術이 移轉될 수 있도록 하

면서 國內 研究機關의 役割도 재정립한다.

政府와 企業, 金融機關등이 참여하는 「産業發展 民官協議會」를 운영하여 成長 有望産業에 대한 技術開發과 設備投資 戰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先進技術移轉 촉진을 위한 外國人 投資環境의 개선을 위해 外國人 投資 制限業種(224개)에 대한 向後 5年間の 開放豫示計劃을 상반기중 마련하여 추진하며 外國人 投資企業의 土地取得과 海外借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研究開發體系의 改善방안으로 政府 技術開發 投資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研究費 支援方式을 현행 「研究所別 支援方式」에서 연구팀에 대한 課題別 「研究契約 方式」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政府 出捐研究機關의 전문인력을 技術隘路가 심각한 中小企業 분야의 現場에 投入하여 生産技術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政府出捐研究所의 保有技術도 企業化에 촉진한다.

III. 企業活動의 自律性 提高

복잡다기한 行政規制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던 企業意慾을 되살리고 깨끗하고 透明한 政府를 具現해서 7개 經濟團體등 民間 建議事項 및 部處 自體發掘事項 등 총 1,079개 課題를 검토하여 이중 670개 課題를 1次 改善 對象으로 확정한다.

그리고 施行令, 規則, 告示改正 등은 上半期中 모두 조치 완료하고 國會審議가 필요한 法律의 改正 혹은 制定도 年內 마무리 한다.

1. 각종 認·許可 등 進入規制의 완화

무역업, 자동차 정비업, 항만운송업, 해외건설

업, 양곡매매·도정·제분업, 장의자동차업, 소규모 음식점 등 현행 認·許可對象을 登錄制 또는 申告制로 대폭 전환한다.

그리고 일반구역 운송사업, 용달업, 해운선사업, 택·약주공급, 연탄공급 등의 供給區域, 事業領域 制限을 철폐 또는 완화하고 항공관련업, 사료 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 설치허가, 세탁업 등은 免許制, 登錄制 또는 申告制를 폐지한다.

2. 工場立地 基準 緩和 및 設立節次 簡素化

首都圈 制限整備地域內的 첨단업종에 대한 工場 增設(3천㎡까지)을 손쉽게 하고, 賃貸專用 아파트型 工場의 입주자격도 완화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都市型 業種 지정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首都圈內 소규모 工團의 指定節次를 간소화하며 既存工場의 증설시 1,000평까지는 申告만으로 農地轉用을 허용하고, 基準工場 面積率 하향 조정으로 尖端業種 등의 敷地難 완화와 수개棟으로 구성된 工場 建築時 棟別로도 竣工을 허가한다.

3. 義務雇傭負擔 緩和, 職業訓練 및 勞務管理制度 개선

産業安全·保健, 環境, 에너지 管理분야 등의 法定義務雇傭人員을 縮小하고 유사 職種間 兼任許容을 확대한다.

職業訓練費用的 用途별 使用制限을 완화하며 委託訓練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職業訓練經費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와 勤勞監督을 이유로 한 事業場 出入을 제한해서 使用主에 대한 각종 報告·出席義務를 대폭 축소한다.

4. 輸出入 節次 簡素化

同一物品의 반복輸出時 1회의 輸出承認만으로 일정기간 輸出할 수 있도록 하고, 1만弗이하 少額 輸出은 承認節次를 免除하며 輸出品質檢査 指定品目, 生絲類 및 水産物에 대한 事前 義務檢査制를 폐지한다.

5. 金融, 證券, 外換 관련 規制의 緩和

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中小企業 少額貸出(1억 원이하)에 대한 信用保證限度 확대, 中小企業의 有償增資 및 會社債 發行物量 제한 폐지, 仲介어음 발행 最低金額을 1억 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 輸出先受金 領受企業 범위를 現行 전년도 輸出實績 50만불이상 기업에서 모든 輸出企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企業經濟活動에 대한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商品券 발행 허용 추진, 1백만불이하 海外投資 申告時 사업타당성 등 審査 생략, 送金限度 확대 등 海外支社 營業활동 규제완화, 外部監査 대상 中小企業의 범위를 축소한다.

6. 租稅 및 關稅 納付節次 改善

法人稅 中間豫納期限과 附加價値稅 納付期限의 중복 조정과 영세업자의 月別 所得稅 납부를 分期別 납부제로 개선하고 關稅納付 담보물에 自己發行 約束어음도 허용한다.

그리고 輸出品의 保稅裝置 義務制를 폐지하여 製造場所에서 通關節次를 허용하며 輸出品 確認 檢査比率을 現행 8.7%에서 5%이하로 축소하고 수출입화물의 保稅運送通路 指定制度를 폐지한다.

7. 土地利用에 관한 規制 緩和

農業振興地域農地의 시장·군수 轉用許可 범위를 확대하고 新規 營農 참여자에 대해 農地 취득전 6개월이상 居住要件의 例外를 인정하며 都市計劃區域內 農地去來의 경우 農地賣買 證明을 생략한다.

그리고 土地利用, 開發制限區域, 首都圈整備 등 관련 사항은 上半期中 綜合改善方案을 별도로 마련한다.

8. 環境 관련 規制의 合理化

諸般 環境基準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排出施設 設置許可 등에 관련된 節次 및 報告를 簡素化하고 有害성이 적은 産業體 廢棄物에 대한 處理基準을 완화한다.

■ 經濟施策의 重點課題

I. 産業構造調整의 促進

1. 産業政策 推進體系의 再定立

가. 政府와 民間이 함께 참여하는 産業發展 體制의 구축

企業은 자율적인 技術開發 및 品質革新 노력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배양하고 業種專門化 및 大企業과 中小企業간 協力 強化를 도모하며 政府는 行政規制를 지속적으로 緩和하고, 技術開發 및 人力養成 支援, 社會間接資本 확충 및 情報化 촉진, 市場競爭의 촉진 등 企業經營與件의 개선에 주력한다.

나. 技術開發中心의 産業政策 추진

技術革新을 産業정책의 最優先 課題로 설정하

고 業種別 戰略技術課題의 선정·개발과 先進技術 導入을 촉진하고 民間주도로 産業現場 需要技術을 중점개발하고 共通隘路技術 및 基盤技術 開發은 公共部門에서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政府는 技術開發投資財源의 확보, 技術人力 養成體制 개편 및 國際協力 지원 등 技術開發與件을 마련한다.

다. 産業政策 運用方式의 전환

民·官間 긴밀한 협조하에 産業別 發展비전 제시와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發展戰略을 수립하고 기술·인력정책, 입지정책 등 機能別 支援政策手段과 業種別 産業政策과의 連繫性을 제고한다.

2. 産業構造調整施策의 推進

가. 선진국형 産業構造로의 轉換 촉진

尖端技術部門의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의 尖端技術分野 및 成長潛在産業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개발·설비자금 공급확대, 기술정보제공 등 對策을 강구한다.

산업의 自立基盤을 위한 素材, 部品, 資本財産業은 機械類國產化 5個年計劃의 지속추진 및 國內需要基盤을 확충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構造調整産業의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企業에 대하여 資金, 技術人力 등을 綜合 支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中小企業의 業種轉換 유도 및 설비의 海外移轉 促進 등 대상기업의 원활한 退出을 지원한다.

그리고 國際環境規制에 부응하여 環境親和的 産業構造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節約型 산업구조로의 개편, 環境設備와 核心技術의 開發 推進 및 再活用施策을 강화한다.

나. 산업의 技術 및 知識集約化 촉진

산업기술개발은 需要爲主의 中·短期課題 중심으로 추진하고 技術開發 자금지원 확대 및 지원체제의 정비와 기술개발의 事業化 및 生産專門化를 촉진하고 新技術製品的 관료 확보방안을 강구하며 先進技術 導入與件을 조성하여 先進企業과의 技術協力 및 戰略的 提携를 촉진한다.

産業技術大學 설립 추진, 工高教育課程 개편 및 社內訓練院의 확충 등 人力養成制度의 개편으로 우수한 産業人力을 양성공급하고 제조, 판매, 유통 등 기업활동전반의 自動化·情報化 추진, 주요업종별 情報化事業 추진 및 綜合産業情報網 구축 등 産業情報化 促進으로 企業競爭力를 제고한다.

산업내 知識集約化 촉진을 위한 知識서비스産業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정, 금융, 세제, 행정면에서 製造業 수준으로 지원(연구개발, 디자인 및 설계, 엔지니어링, S/W 및 정보관련서비스업, 기술 및 경영자문업, 영상산업 등)하며 지적재산권 保護機能 강화와 關聯制度 개선을 통하여 知識去來 慣行을 정착시키고 情報네트워크를 확충한다.

品質 信賴性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國際品質保證制度의 도입 촉진을 위한 國內認證機關의 지정 확대 및 제품의 精密度 향상을 위한 國家測定標準의 개발을 확대한다.

다. 대규모 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 촉진

대규모 기업집단의 非關聯 多角化를 지양하고 「主力業種」을 전문화하여 「主力企業」을 선진국 一流企業 수준으로 大形化 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投資가 소요되고 他産業에 前後方關聯效果가 크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중에서 3개 이내의 「主力業種」을 선정하고 이 중 소수기업을 「主力企業」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主力企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與信管理, 技術開發資金 및 工業立地 등에서의 優待措置를 강구하며 다만, 여신관리에 관한 사항은 與信管理指針에 따라 추진한다.

「主力企業」이 非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에 出資 또는 債務保證을 하는 경우 公定去來法상의 制限을 강화한다.

3. 競爭力強化를 위한 企業經營構造의 革新

가. 所有分散의 촉진

- 非公開 系列企業중 公開要件을 충족한 登錄法人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증시상황을 보아 企業公開를 확대 추진
- 상장법인의 優先株 發行限度를 資本市場育成法상의 발행주식한도 1/2에서 商法上 限度인 1/4로 축소(95년)
- 공익법인과 합병·증자·감자등 株式을 이용한 變則的인 相續·贈與行爲에 대한 稅務管理 강화

나. 企業財務構造의 개선

- 借入金 支給利率費用의 損金 不算入을 확대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業務 非關聯 貸與金, 假支給金 取扱制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94년)
- 社內留保 促進 및 財務構造 健實化를 위해 超過留保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완화하고 資產在評價制度를 개선

다. 기업경영의 透明性 제고

- 聯結財務諸表 作成義務 對象法人을 擴大(94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企業集團 聯結財務諸表 作成義務化를 검토(96~97년)

-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調整(94~96년)하고 會計情報의 統一性 제고(94~95년)
- 監査人 地名制度를 확대하고 회계분식 및 不實監査責任者에 대한 制裁를 강화

主要産業別 發展戰略

- 加工組立産業(전자, 자동차등): 모델의 高유화,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成長主導産業으로 적극 발전
- 素材産業(철강, 석유화학등): 고부가가치화, 시스템화를 통하여 安定成長을 유지
- 輕工業(섬유, 신발등): 構造調整 노력과 함께 패션화, 개성화로 경쟁력 확보
- 成長潛在産業(항공, 정보·통신기기, 자동차기기등): 技術開發 및 선진국화의 技術提携, 生産體制의 확장을 통하여 向後의 成長主導産業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구축

*** 加工組立産業**

自動車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을 國際競爭規模로 확충하고 獨自技術 개발능력을 확보 · 完成車 부분과 均衡을 이루도록 部品産業의 발전 도모
半導體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분야의 次世代 半導體技術을 개발 · 비메모리분야를 본격 발전시키고 製造裝備 및 核心材料 개발
家電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核心製品 및 部品를 업계 공동으로 개발 · 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特消稅 暫定稅率制度를 활용
工作機械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제어장치등 輸入工作機械의 국산대체 및 核心部品の 개발을 촉진
造船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船型 개발과 액화천연가스(LNG)등 高附加價值船의 기술자립화 촉진 · 선박설계, 생산전산화시스템 및 核心機資材 개발

*** 素材産業**

鐵網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융환원제철법등 次世代 製鐵技術 개발과 자동차투자 확대 · 고철가공단지 조성 및 항만운영 민영화등 港灣運送體系를 개선
非鐵金屬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金の 高純度化 및 가공부문의 産業容 尖端素材技術 개발 · 제련설비규모를 適正水準으로 확충
石油化學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 特化製品에 대한 기술개발 · 납사등 原料의 안정적 調達 및 合理的 投資유도

*** 輕工業**

纖維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자동화 및 정보화로 多品種 少量生産體制를 구축 · 기술의 선진화와 패션의 國際化로 高附加價值化 실현
신발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固有商標의 개발 및 해외마케팅 강화로 수출 확대 · 기술개발 활성화 및 生産工程의 표준화, 자동화 촉진

*** 成長潛在産業**

航空宇宙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등 中級技術의 機種개발 · 항공우주관련사업의 綜合調整機能 強化 및 지원체제 정비
自動化器械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충 · 부품의 規格化事業 확대, 자동화 설비 및 核心部品 개발을 촉진
컴퓨터·通信器械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尖端情報시스템技術」등 3대 기술개발로 기술자립을 도모 · 경쟁력의 관건인 標準化事業을 적극 추진하고 需要基盤을 확충 · 유선방송(CATV), 멀티미디어등 新規有望分野의 발전 촉진
環境設備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설비산업의 尖端産業 指定등 전문업체의 발전기반 구축 · 환경설비 專門入力 양성 및 核心開發課題에 대한 집중 투자
精密化學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波及效果가 큰 개발과제를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개발 · 기 조성중인 染料·顔料園地를 차질없이 완공

II. 技術開發의 促進

1. 民間의 創意와 活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民間主導의 技術革新體制 확립

- 企業敷設研究所, 研究開發 獨立法人 등 민간연구개발조직을 적극 활성화
- 실용성위주의 科學 및 産業技術情報 서비스 기능 강화
 - 海外技術情報蒐集을 강화하고 專門出捐(研)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데이터베이스(B/D) 구축
- 研究開發人력의 확대 및 정예화
 - 優秀 理工系大學을 大學院中心體制로 육성하고 産·學·研 協同 學位課程 등 산업현장과 連繫되는 인력양성제도 확충
 - 海外僑胞科學技術者 유치를 위한 브레인 풀(Brain Pool)制度를 活性化
- 기술개발에 대하여 租稅등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企業附設研究所 설립·운영 등에 관한 行政規制 완화
- 韓國工學賞 신설 등 科學技術關聯 褒賞制度의 개선과 國立中央科學館, 地方科學教育院 등을 통한 科學技術 國民理解基盤 확충

2. 産業競爭力 向上과 연계될 수 있도록 需要指向의 技術開發體制 강화

- 技術豫測 및 研究企劃·評價機能을 강화하여 시장여건변동 등에 따라 開發課題를 신축적으로 조정
- 企業主導의 産·學·研 協同研究體制 구축
 - 지역별 産·學 研究開發 컨소시엄 형성을 유도하고 産·學·研間 人力交流 促進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발기술의 實用化와 新技術製品의 시장진출 촉진
- 기술개발의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出捐(研)을 주요 기능별로 特性化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運營體制 개편
- 美·日·러시아 등 先進技術圈域과의 기술협력 강화

3. 科學技術開發投資의 확대 및 國家研究開發事業의 효율적 추진

- 研究開發投資 확대 및 효율화
 -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研究開發投資 財源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위하여 綜合科學技術 審議會를 발전적으로 개편
- 産業競爭力 강화를 위해 生産技術開發計劃 등 기존사업을 실용성 위주로 보완하고 中間核心技術, 엔지니어링 및 産業디자인 등 취약부문 기술개발
- 年度別 目標管理制 도입 등을 통한 核心先導技術開發事業의 효율적 추진 및 航空宇宙, 原子力 등 巨大技術 開發事業 추진
- 優秀研究센터 육성, 尖端研究施設 확충 및 共同利用體制 강화 등으로 基礎科學研究 활성화
- 國民生活의 便益增進을 위한 交通·環境·通信·保健 등 公共福祉技術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

III. 에너지 및 資源의 效率的 利用

1. 에너지 需給戰略의 補完·調整

需要管理爲主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여 97년까

지 에너지 消費增加率을 經濟成長率 以下로 유지키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需要管理爲主로 改編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한 원천적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화한다.

發電設備등 에너지 供給施設을 最適化하고, 低公害化에 대응한 石油精製施設의 고도화를 유도하며 에너지 수급구조변화 및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長期綜合에너지 需給計劃 및 에너지원별 수급계획을 조정한다.

2. 에너지 低消費型 經濟構造로의 轉換 촉진

에너지 多消費業體에 대한 원단위 10%절감 유도 및 輸送·建物·住宅部門등의 節約施策강화로 經濟構造를 에너지 低消費型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供給者에 대한 需要管理를 義務化하여 에너지 절약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節約 推進基盤을 확충한다.

3. 에너지 절약 技術開發의 積極推進

에너지 節約技術을 10개분야 25개 과제로 나누어 産業體 共通隘路技術은 民間主導로, 大型複合技術分野는 政府主導로 중점 개발하며 化石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태양열·풍력등 10개분야의 新·再生에너지 技術開發을 촉진하고,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를 적극 추진한다.

IV. 中小企業의 競爭力 強化

1. 構造高度化 촉진 및 生産技術力 강화

有望中小 製造業體에 대한 構造改善事業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自動化·情報

化産業을 확대하기 위해 事業段階別로 전문업체·공공기관간의 連繫支援體制 구축, 技術研修 및 對外技術協力을 확대한다.

그리고 기술력 강화 및 개발기술의 事業化 촉진 방안으로 公共機關의 기술지도사업을 체계화하고 모기업의 受給企業에 대한 技術指導를 적극 유도하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간 共同技術開發을 확대하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技術者 풀(Pool)制」 도입 및 기술훈련기관의 기술연수를 확대한다.

技術集約型 창업의 촉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設立 擴大 및 創業投資會社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며 정보망 확충등으로 市場開拓 및 海外投資 活性化를 뒷받침한다.

2. 民間部門의 자율적 協力基盤 구축

中小企業과 大企業間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母企業의 受給企業體協議會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와 大企業의 協力中小企業에 대한 자율적 자본참여, 연계보증, 기술협력을 유도하여 指定系列化 품목을 조정하고 계열화 豫示制를 활성화하는 한편, 조립대기업과 중소부품업체간 共同技術開發을 장려한다.

中小企業간 共同協力事業은 시설공동화, 공장 집산화 등을 위해 協同化團地의 확대조성과 공동 집배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公正한 受給去來風土의 정착 및 수급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3. 地方中小企業의 發展

지역특성에 맞는 中小企業 育成計劃을 자치단체 주관으로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는 중소기업 행정專擔組織을 마련하고 지방의 支援機關들을 집

결시킨「地方中小企業 綜合支援센터」를 운영한다.

지방소재 金融機關 및 信用保證機關의 역할을 증대하여 小企業 育成施策을 특성화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소액간이보증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經營基盤을 조성하며 重層的 系列化를 통해 部品生産 專門小企業의 성장을 촉진한다.

4. 支援體制의 改編

현행 8개의 中小企業 關聯法律을 통합·정비하고 支援機關들의 機能을 專門化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개편,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義務貸出 比率制度는 信用貸出慣行의 정착에 따라 단계적으로 緩和한다.

有望中小企業制度등 특성별 시책을 통합·정비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固有業種制度 및 團體隨意契約制度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V. 消費者保護 強化

1. 消費者教育 強化를 통한 消費者 主權意識의 신장

學校 教育課程에 消費者 教育內容을 강화하고 社會人을 위한 체계적인 消費者教育의 실시로 消費者 意識改革을 추진하며 民間消費者 團體를 분야별로 特化하고 消費者團體의 육성 및 지원강화 등을 통해 消費者運營을 활성화 하고 企業體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認識을 提高하여 消費者 被害 報償機構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消費者에 대한 情報提供 기능 및 商品安全基準

危害 情報의 蒐集·提供機能의 활성화 및 商品

情報에 대한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消費者가 商品 選擇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農產物 및 食品의 表示制度 개선과 不當表示·廣告에 따른 消費者 피해를 豫防하기 위하여 廣告關聯 團體의 구체적인 自律規制 基準 마련을 유도하고 虛偽·誇張廣告 등에 대한 制裁를 強化한다.

또한 商品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國際的 水準으로 상향 조정하고 輸入商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97년 輸入의 全面自由化에 대비하여 美國의 FDA같은 기구의 신설방안과 FDA수준의 安全性 檢査節次의 도입을 검토한다.

3. 消費者 保護를 위한 公正去來機能 強化

國民生活과 관련이 깊은 장의·예식업종 등 서비스업의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해 적극적으로 監視·是正조치하며 割引特賣許容期間 및 대상품목, 정품 제공기간과 한도액 등을 商去來 與件變化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表示廣告, 訪問販賣등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율하는 行政體系를 효율화 하고 不當去來 約款의 規制強化와 不公正 約款 다발분야에 대하여는 事業者團體 등을 통하여 標準約款의 제정을 유도한다.

4. 消費者 保護關聯 법령 및 制度整備事業 추진

消費者保護法등 소비생활 관련법령을 改正補完하고 소비자보호 行政組織 및 機能을 대폭 보강하여 消費者保護施策의 效率性을 제고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消費者 被害救濟를 위해 集團訴訟制度의 도입등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검토한다.